

지방자치·국제



광주 서구청장 재선거를 하루 앞둔 26일 민주당 김선옥 후보와 국민참여당 서대석 후보, 무소속 박금자, 김종식 후보(사진 원쪽부터·기호 순) 등은 서구 관내 경로당과 복지관, 상가 등을 돌며 막판 지지를 호소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광주 서구청장 재선 막판 ‘불꽃 유세’

관내 구석구석 돌며 자원봉사·거리 유세 선거운동원·지지자들과 표밭 다지기 총력

광주 서구청장 재선거를 하루 앞둔 26일 각 후보들은 마지막 불꽃유세를 펼치며 지지를 호소했다.

민주당 김선옥 후보는 이날 정동영 민주당 최고위원과 함께 서구 노인종합복지관 등에서 배식 자원봉사와 거리 유세를 하며

막판 굳하기 작전을 펼쳤다. 오후에는 민주당 유선호 의원(영암)이 김 후보와 함께 운천 호수와 화정역 사거리, 염주사거리에서 릴레이 유세를 펼쳤다.

김 후보는 밤 늦게까지 서구문화센터 사거리 등 유동 인구가 많은 지역에서 선거운

동원들과 함께 마무리 유세를 갖고 마지막 지지를 호소했다.

국민참여당 서대석 후보는 이날 새벽부터 경로당과 상가 등을 돌며 60대 이상 노년층을 집중 공략했다. 또 선거운동원과 지지자들과 함께 마지막 유세를 펼치며 막판 지지층 다지기에 심혈을 기울였다.

무소속 박금자 후보는 이날 오전부터 밤 늦게까지 서구 관내 복지관과 경로당 등을 돌며 유권자와 일대일 접촉을 통한 표밭 다지기에 열을 올렸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후보 4인의 마지막 호소

“서민 삶 보살피겠다”

김선옥 이번 선거는 2012년 대권의 향방을 좌우하는 시급식이다. 독재정권시절 희망과 용기, 지혜를 찾아낸 민주당은 우리의 모태다. 출마자들 모두 민주당에서 성장했을에도, 혼신쓰쳐처럼 버리고 나간 회색분자에 불과하다. 속지 말아야 한다. 민주당은 국민 속으로 더 깊이 다가가 서민의 삶을 보살피는 당이 될 것이다. 새로운 민주당에 힘을 달라. 낮은 자세로 주민만을 위해 일하겠다.

“행복한 서구 만들티”

서대석 선거운동 기간 동안 깨끗하고 정직한 선거, 참신하고 즐거운 선거를 통해 서구민들의 신뢰와 지지를 받도록 노력했다. 그동안 지지와 격려를 보내준 많은 유권자에게 감사한다. 이제는 변화를 열망하는 많은 서구민들이 직접 투표장에 나가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해야 한다. 사람사는 세상, 행복한 서구를 만들기 위해 서대석에게 꼭 소중한 한 표를 부탁한다.

“미래 성장동력 구축”

박금자 서구에서 지방의원 4 선을 거치면서 복지, 행정전문가로 구민과 늘 함께 했다. 누구보다 서구를 잘 알고 많은 경험을 했다고 자부한다. 이런 경험을 바탕으로 서구를 보다 발전적으로 혁신시켜 미래의 성장동력을 구축하고자 한다. 깨끗하고 올바른 가치관을 가진 후보가 정치를 바로 세우고 서구 발전을 이룰 수 있다. 구민들과 함께 땀 흘릴 줄 아는 참신하고 깨끗한 박금자에게 한 표를 줄 것을 믿는다.

“인물 보고 찍어달라”

김종식 이제 광주·전남에서는 민주당 막대기만 끊어도 당선된다는 사고방식을 바꿔야 할 때가 됐다. 인물을 보고 찍을 때가 됐다. 이번 선거에서 김종식을 믿고 표를 주면 25년간의 행정경험과 중앙부처의 인맥을 종동원해 서구 발전에 앞장서고, 주민 여러분께 열과 성을 다해 현신봉사하겠다. 누가 구정 실태를 제대로 할 것인지, 누가 구청장에 가장 적합한지를 잘 판단해서 꼭 투표해 주길 간절히 부탁한다.

“北, 연 3~4차례 이산가족 상봉 제의”

북측은 26일 남북 적십자회담에서 금강산 관광 재개 문제를 다시 요구했다.

북측 대표단 최성의 단장은 이날 오전 자남산여관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기조 발언을 통해 “이산가족 상봉 사업을 정상

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는 금강산면회소 등 남측 시설들을 정상 운영할 수 있는 조치들이 선행돼야 한다”며 “금강산 관광 재개업과 관련한 당국 간 실무회담이 시급히 개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고 회담관

외하고 내년 3월부터 남북 각각 100가족 규모로 매월 한차례 이산가족면회소에서 정례적인 상봉 행사를 갖자고 요구했다.

우리 측은 또 이미 상봉했던 이산가족들도 남북 각각 50가족씩 매월 재상봉 행사를 가질 것과 80세 이상 고령자들을 상대로 내년 4월부터 고향방문 사업을 실시할 것으로 촉구했다.

/연합뉴스

광주시의회 ‘들쭉날쭉 예산심사’

삭감 예산 부활 놓고 정회 등 진통

광주시의회가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면서 소관 상임위가 삭감한 예산을 예결위에서 다시 부활시키는가 하면, 예결위에서 삭감된 일부 예산을 본회의에서 되살리는 문제를 놓고 진통을 벌이는 등 ‘들쭉날쭉 예산심사’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광주시의회는 26일 제192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갖고 광주시가 제출한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했다. 그러나 예결위에서 삭감됐던 지역아동센터 지원비 6000만원과 첨전유공자 참전명예수당 1억 6000만원을 본회의에서 살리자는 일부 의원들의 의견이 제기되면서 2차례나 비공개 의원총회를 갖고 정회에 들어가는 등 진통을 빚었다.

광주시의원들은 의원총회에서 예결위 원안증과 수정의결 등 2가지 안을 놓고 표결을 벌였으나 의견이 엇갈리면서 갈등을 빚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 배경에는 광주시나 일부 관련단체들이 예산 재편성을 강하게

희망한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광주시의회는 논란 끝에 예결위 원안대로 의결했으나 이 과정에서 한 의원이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예산심사 진행상황을 비판하기도 했다.

이에 앞서 광주시의회 예결위는 산업건설 위원회 심의에서 전액 삭감된 ‘광주시 폴리 디자인사업비’ 5억원을 부활시켰다. 산건위는 광주시가 폴리디자인을 내년 디자인비엔날레와 연계시켜 추진하겠다고 예산을 요구했지만 구체적인 사업실행 계획이 없다는 이유로 이를 삭감했다.

하지만, 예결위는 상임위의 의견과 달리, 폴리디자인 관련 예산 5억원을 전액 반영했다. 한 의원은 “예산심사 과정에서 원칙이나 일관성이 없이 죽었던 예산이 살아나고 살았던 예산이 삭감되고 있다”며 “예결위와 상임위 사이에 충분한 이해 없이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행정사무감사에 시민제보 받는다

광주시의회가 다음달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광주시 산하기관과 교육청의 부정·비리에 대한 시민제보를 받는다.

윤봉근 광주시의회 의장은 26일 오전 제192회 임시회 본회의 ‘산회 인사말’을 통해

“다음달 10일부터 19일까지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를 내실있게 수행하기 위해 시민들의 제보를 받기로 했다”며 “광주시와 산하기관, 교육청 등에서 불합리하게 집행되는 시책이나 관행, 부정한 행위, 예산 낭비와

인, 시민 불편사항, 개선사항 등을 접수받는다”고 밝혔다. 시민 제보는 광주시의회 홈페이지나 시의원 이메일, 의회 팩스 등으로 접수받을 예정이다.

윤 의장은 “시민과 함께 소통하는 의회를 구현하고 시정 전반에 대한 보다 내실있는 견제와 정책적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시민 제보를 받을 것”이라며 “시민들의 활발한 참여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광주에 지적장애인 지원 조례 이행 촉구

복지協 “종합지원센터 운영 위한 구체적 시행규칙 만들어야”

광주시 지적장애인복지협회는 26일 오후 광주시의회에서 ‘광주시 지적장애인 등에 관한 지원조례’ 이후 후속조치에 관한 공청회’를 열고 지난해 제정된 ‘광주시 지적장애인 등에 관한 지원조례’의 이행을 광주시에 촉구했다.

광주 지적·자폐성 인권협의회가 주최하고 광주시 지적장애인 복지협회가 주관한 이날 공청회는 지적 장애인 관련기관 및 특수학교 및 특수학급 학생과 부모 등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광주 지적장애인협회는 이날 공청회에서

지난해 제정된 ‘광주시 지적장애인 등에 관한 지원조례’가 광주시의 구체적인 정책이 행을 강제할 수 없는 임의조항으로 규정돼 있는 만큼 지적장애인들에게 통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종합지원센터를 세워 운영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시행규칙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공청회는 지난해 광주시가 제정한 지적장애인 등에 대한 지원조례가 임의규정으로 돼 있어 한계로 지적되자 현실화를 위해 마련됐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미친만네

그동안 함양옻닭을 애용해 주신 고객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다 더 훌륭하고 편안하게 모시고자 아래의 장소로 이전하게 되었음을 안내하오며,
2000년 8월 4일 개업이래 변함없이 성원해 주신데 대하여 더욱 정성으로 모실것을 약속드립니다.

토종 참옻닭 | 옻 청동오리 | 옻 삼계탕 | 촌닭 백숙 | 삼계탕

지라산 함양 참옻닭

예약 전화 062-515-5757
북구 유동 9-3(삼성병원 뒷편)

옥상·외벽·내벽·주택 전·문·방·수 방수

기술 필요없이 누구나 직접 방수를 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쉽게 봇이나 틀라로 직접 칠해주세요”

- 청단소재 -
미화특수방수
ENG 방수

- 청단소재 -
미화특수방수
ENG 방수

- 청단소재 -
미화특수방수
ENG 방수

기술 필요없이 누구나 직접 방수를 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쉽게 봇이나 틀라로 직접 칠해주세요”

- 옥상 지붕이 새는 건물
- 외벽, 내벽, 지하실, 화장실
- 바닥이 오래되어 모래가 일어나는 옥상 및 바닥
- 장마철 누수 및 습기찬 곳
- 옥상방수 하자에 지자신 분
- 낡은 옥상을 새 옥상으로 만들어 줍니다.

- 가격이 저렴하여, 시공면을 깨끗이 물 청소하고 로라로 직접 칠해 주세요.
- 고집 투성, 무공해 무독성 제품으로 건물의 수명을 연장시켜 줍니다.
- 물기나 습기 있는 곳도 공사할 수 있습니다.
- 한번 시공으로 반영구적이다.

역사와 전통의 미화표를 꼭 확인하세요...